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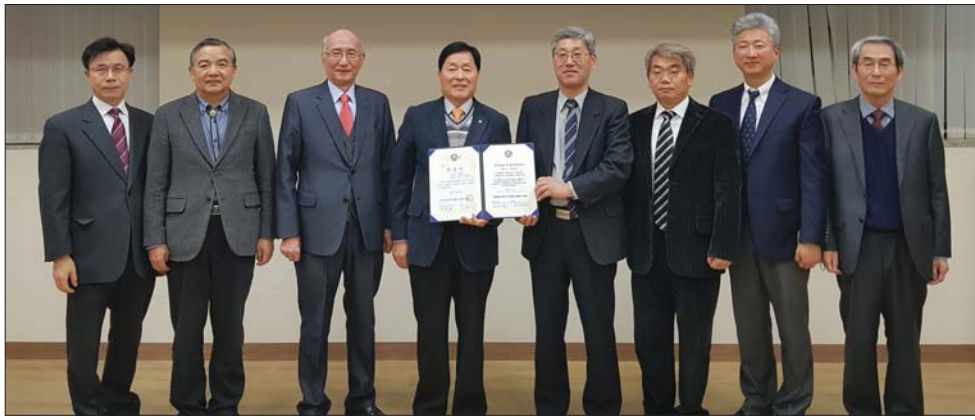
전북대 수의대, 수의학교육인증 최고등급 획득

학생 교육·시설 환경 '매우 우수' 평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어성국)이 국내 수의학교육인증 주관기관인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수의학교육 인증 최고등급인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수의학교육평가인증은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심사위원단의 인증평가 과정을 통해 수의학을 전공한 졸업생이 전문적인 수의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충실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최고 등급인 '완전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대가 학생 교육과 시설 환경 등 전반적인 부분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전북대 수의대는 2015~2016 QS세계대학평가에서 수의과학 분야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국내 수의학교육인증 주관기관인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수의학교육 인증 최고등급인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어성국 수의과대학 학장은 "수의학교육인증의 공적 평가기관인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완전인증'이라는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전북대학교가 QS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100대 대학 선정에 이어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수의학 분야에서 모범생을 넘어 모범생을 키우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

로 보완해 학생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교수, 직원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산·학·연·관 협력 워크숍 성황리 마쳐

LINC+사업 성과보고·전시·우수가족회사 감사패 전달 등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 교수)은 '산·학·연·관 협력 워크숍(JT Techno Festa)'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가족회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학협력 선도해오면서 산학연관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워크숍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전주대는 11월 셋째 주를 '산학협력 주간'으로 정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현장실습 참여 수기공모전,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2018 TRIZ 전국경

진대회, 2018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 등을 개최했다.

이번 산학협력 축제의 장에는 전북 지역 일반인 및 대학생, 전국 각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전주대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산학협력 주간에 맞아 대학과 지역 및 기업이 상생하는 산학협력 4.0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가족회사와의 교류와 협력 면에서 더욱 성장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이 '산·학·연·관 협력 워크숍'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전주공고 따뜻한 연탄나눔 봉사활동 펼쳐

전주공업고등학교(교장 정대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따뜻한 봉사,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매년 전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7일 전주연탄은행과 연계해 교사 및 학생 45명은 전주 남노송동과 교동 일대 난방 취약 4가구에 1,000장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공모

공약 이행 평가·도민 의견 수렴 남·녀 22명 모집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공약 이행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한 공약관리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약관리위원회는 교육감의 공약이행 상황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공약사항을 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공약관리위원 36명 중 22명을 외부인사로 채용 예정이며, 남녀 각각 11명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지원 가능하며, 이달 27일까지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12월 7일이며 모집인원의 1.5배를 무작위로 추첨한 후 경력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를 참조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익산 용성초의 용성 Do Dream FC가 지난 17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 전국대회 유소년부에서 우승했다.

익산 용성초,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 우승

용성 Do Dream FC 창설 후 첫번째 쾌거

익산 용성초(교장 민완성) 용성 Do Dream FC가 지난 17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 전국대회 유소년부에서 우승했다.

올 들어 드론전국대회 5관왕을 차지한 진도영 어린이가 개인적인 드론드라이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용성 Do Dream FC는 우승을 차지하여 용성초등학교가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2016년 처음으로 드론교육을 실시해 올 1학기까지 매년 드론정밀부문에서 다관왕을 차지해온 용성초등학교는 올해 하반기부터 드론축구로 영역을 확

대하여 강방용 선생님의 지도로 착실히 준비해 최고의 드론축구 팀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학생 수가 적어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만으로 이루어진 용성 Do Dream FC는 2019년에는 교내에 자체 드론축구장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연습여건이 좋아지고 학생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한편, 우승의 주역인 4학년 진도영 어린이의 사연이 오는 21일 SBS TV '연애발굴단'을 통해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학부모 진로진학 지도역량 키운다

전북교육청, 전주·군산·익산 지역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9일부터 21일까지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자녀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진로진학 지도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 지도의 효과를 높이고 진로진학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희망지는 초등 5~6학년 학부모와 중등 1~3학년 학부모 누구나도 참여 가능하다.

19일 전주형 학부모 300명 대상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일 익산형 학부모 150명 익산웨스턴라이프호텔 컨벤션홀에서, 21일은 군

산형 학부모 150명 대상으로 군산라마다호텔 갈라홀에서 진행된다.

김경집 교수(가톨릭대)가 '자녀의 창의적 미래 설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임신일 교수(예수대)·이호준 교수(전주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자녀상담의 실제', 정승모 교사(전북도교육청 대입지원실)의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른 진로진학 지도'강의가 이어진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는 전북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자녀에 대한 신뢰와 소통,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